

연준과 시장을 실망시키는 2016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본 보고서의 모든 예시는 특정 상황들의 가정에 근거한 해석이며 오로지 설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시각은 저자의 것이며 반드시 CME 그룹이나 그 계열 기관의 시각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와 이 안에 담긴 정보를 투자 자문이나 실제 시장 경험의 결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2016년 미국 경제에는 몇몇 중대한 역풍이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1.60%로 실망스러운 수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유가 하락으로 2016년 일반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은 그 차이가 줄어들면서 연준의 장기 목표인 2%보다 낮은 1.35%~1.75% 수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수익률을 움직이는 주요 동인이 연준의 단기금리 정책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활력 없는 경제 및 인플레이션이라는 실망스러운 전망이 암시하는 것은 2016년 채권가격이 반등하면서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75%~2.50% 범위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연준이 다음 번 금리인상을 2016년 여름까지 미룰 것이며, 연방기금금리는 2017년까지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Source: St. Louis Federal Reserve Bank FRED Database (GS10, PCEPIFE)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지금 1945~1965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노동인구 중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중 일부는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1인당 소비는 그들의 소득이 정점이었던 때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2020년대에 20%가 되면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속적인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노동인구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참가율의 하락이 그 부분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인구증가율 둔화와 인구노령화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중 그 어느 것도 이 강력한 인구추세의 파급효과를 역전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노동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실질 GDP 성장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잠재적인 실질 GDP 성장률이 연 2% 미만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자본투자나 기술 향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매우 특별하고 색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고도로 현대화되고 자본화된 경제의 노동생산성이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연평균 1.5% 이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미시시피강의 범람과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보다 단기적인 역풍도 존재합니다. 미시시피강의 범람은 2016년 1분기 실질 GDP를 0.3~0.6% 혹은 그 이상으로 감소시킬 것입니다. 선박 운항이 지장을 받고 있어서 운송업자는 수송경로를 철도로 변경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항만의 물류가 위축될 것입니다. 물론 그 영향은 일시적이고, 경제는 다시 회복되겠지만 여전히 2016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5년 1분기 미국 서부 항만의 부두노동자 파업도 비슷한 피해를 야기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는 또 하나의 중대한 역풍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6.5%이지만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아마도 5.5~6.0% 성장에 머물 것입니다. 러시아는 유가 하락, 브라질은 정치 불안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016년 유로존의 성장률은 1~2% 정도가 될 듯한데, 경기침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활력이 넘치는 수준도 아닙니다. 선진 원자재 생산국인 호주,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원자재를 생산하는 신흥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약 국가의 통화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화폐전쟁”은 아니며, 단지 시장이 국부가 줄어든 국가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재조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단기적인 혼란,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와 함께 비중이 큰 베이비부머 은퇴와 지출 감소의 장기적 영향이 더해지면서 미국 경제는 실망스러운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2016년 1분기 미국의 실질 GDP성장률은 아마도 0~1%(연율)에 그칠 것이며, 2016년 전체로는 1.60%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Source: St. Louis Federal Reserve Bank Fred Database (GDPIC).
Estimates for Q3/2015 - Q4/2017 by CME Economics.

선물 및 스왑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및 스왑 포지션에 예치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손해를 보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한 번의 거래에는 이러한 자금 중 일부만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상의 모든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매도의 제안이나 권유, 금융 관련 자문의 제공, 거래 플랫폼의 구축, 예치금의 활용 또는 수취, 관할권과 유형을 막론한 다른 어떠한 것이든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상의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자문으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다. 본 정보는 개인의 목표, 재정적 여건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에 따라 행동을 취하거나 이에 의존하기에 앞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상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CME 그룹은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CME그룹이나 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고안되거나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ME그룹은 해당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CME그룹은 해당 정보 또는 제공되는 하이퍼링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가 외부 웹사이트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라도, CME그룹은 어떠한 제3자 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하여도 지지 또는 권고, 승인, 보증이나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CME Group 및 “芝商所”는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Globex 로고, E-mini, E-micro, Globex, CME 및 Chicago Mercantile Exchange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 (“CME”)의 상표입니다. CBOT 및 Chicago Board of Trade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 (“CBOT”)의 상표입니다. ClearPort 및 NYMEX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 (“NYMEX”)의 상표입니다. 이들 상표는 그 소유권자의 서면 승인 없이 수정, 복제, 검색시스템에 저장, 전송, 복사, 배포 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Dow Jones는 Dow Jones Company, Inc.의 상표입니다. 그 외의 모든 상표는 각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본문에서 규정 및 상품명세에 대해 언급한 모든 내용은 CME, CBOT, NYMEX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 공식 규정은 본문 내용에 우선합니다. 계약 명세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CME와 CBOT 및 NYMEX는 각각 싱가포르에서 Recognized Market Operator (공인시장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의 Automated Trading Service (자동매매서비스) 제공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일본 법률 제25호 금융상품거래법(1948년, 개정)에 의한 어떠한 해외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또는 해외금융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CME Europe Limited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어떤 관할권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금융서비스도 제공자로서, 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CME Group 산하의 어떤 기관도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만의 어떠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 및 호주에서 각각 자본시장법 제9조 5항 및 2001년 기업법(C)와 그 관련 규정상의 정의에 의한 “전문투자자”에의 배포를 위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배포가 제한됩니다.